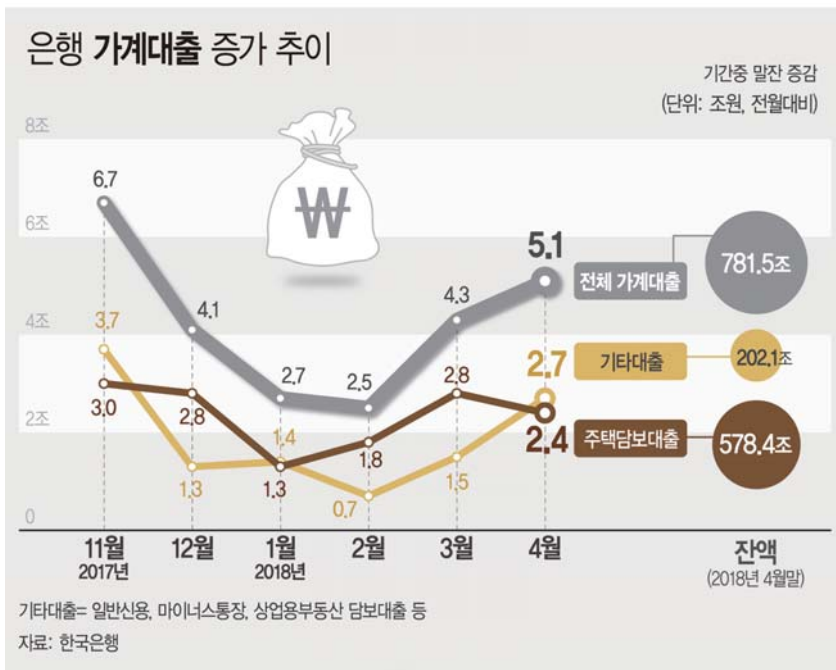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첫 200조 돌파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 둔화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여파로 전체 가계대출은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14일 한국은행의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8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

어난 것이다. 1년 전(4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높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1월 2조7000억원에서 2월 2조5000억원으로 잠시 주춤더니 3월 4조3000억원, 4월 5조1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에는 신용대출이 한몫했다. 지난달말 은행권 가계 기타대출은 20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000억원 증인 21조6000억원 늘어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3조6000억원 증가해 1분

4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781.5조...5개월만 '최대폭' '풍선효과' 신용대출 증가...기타대출 2조7000억 ↑ 가계 주담대 수요는 2조4000억 증가에 그쳐 '둔화'

이너스통장 대출이 주를 이룬다. 기타대출 잔액이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3조7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한은은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 이주자금과 신규 아파트 분양입주 관련 자금, 봄 이사철을 맞은 생활자금 수요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대출 증가액 2조7000억원 중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기타대출의 급증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타대출은 역대 최대폭인 21조6000억원 늘어난데 이어 올 1분기에도 3조6000억원 증가해 1분

기중 역대 최대폭 증가 기록을 세웠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2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디주전자 임대세 증가 등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000호로 전월(1만4000호)보다 크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578조4000억원이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전월(4조1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이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3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달 민간대출 상환이 늘어 증가폭이 전월 4조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2조9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LG 코드제로 R9 쌍극 출시 LG전자는 코드제로 R9 쌍극을 국내시장에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은 고성능 센서,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 '딥싱크', LG 코드제로 시리즈의 핵심 기술력을 대거 탑재해 프리미엄 로봇청소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이다.

제주항공 직원들, 올 여름 희망 여행지 베트남 '다낭'

제주항공 직원들은 베트남 다낭을 올 여름에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로 뽑았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임직원 656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를 뽑는 사내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를 실시한 결과 322표(49.1%)를 얻은 베트남 다낭이 1위를 뽑혔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괌이 286표(43.8%)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태국 방콕이 170표(25.9%)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 삿포로는 164표(25.0%)를 4위를 차지했다. 또 베트남 나트랑(나짱)이 144표(22.0%)를 얻어 5위를 차지하며 '톱 5'에 베트남의 휴양지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통적인 인기여행지인 괌과 방콕이 2위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다낭, 나트랑 등 베트남에 대한 높은 관심이 눈에 띈다. 베트남은 최근 한국인 방문객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나라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까지 89만2400여 명이 베트남을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 70만3000여 명보다 약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카레·컵라면·시리얼 가격 많이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9% 저렴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지난달 다 소비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카레·컵라면·시리얼 등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밝혔다.

카레(4.3%)·컵라면(2.2%)·시리얼(2.0%) 등 15개는 올해 3월 대비 지난달 가격이 상승했다. 국수(-3.8%)·커피믹스(-1.7%)·두부(-1.4%) 등 13개는 가격이 하락했다. 오렌지주스·생수는 보험세를 유지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카레와 냉동만두의 경우 올해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두부·된장의 경우 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두(-12.7%)·햄(-4.7%)·맛살(-3.0%) 등은 하락했다. 또 즉석밥·밀가루·시리얼·라면·국수 등 '곡물가공품과 설탕·간장·참기름 등 '조미료류'의 가격이 주로 상승했다.

유통 업체별로 보면 대형마트가 백화점에 비해 11.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총 구입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11만689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11만9127원, SSM 12만2517원, 백화점 13만163원 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1.8%, SSM보다 4.8%, 전통시장보다 1.9%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공감 마케팅조 정본직필 전한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소상공 상점가 등록 쉬워지네"

2천제곱미터 이내 상점가 50개 → 30개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경기하락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점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 기준을 기존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 소외되었던 지역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적용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중기부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상점가 후보군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점가에 등록되면 특성화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점가 등록 방법은 해당 지역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광주·전남청 김진형 청장은 "상점가의 기준이 완화돼, 지역별로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권 및 상점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상점가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